

사회탐구 영역

※ 본 전국연합학력평가는 17개 시도교육청 주관으로 시행되며, 문제지는 EBS에서만 제공됩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생활과 윤리 정답

1	③	2	②	3	①	4	④	5	④
6	④	7	③	8	④	9	⑤	10	③
11	④	12	①	13	②	14	⑤	15	③
16	②	17	②	18	③	19	①	20	⑤

생활과 윤리 해설

- [출제의도] 윤리학의 구분 이해하기**
(가)는 이론 규범 윤리학, (나)는 메타 윤리학이다. 이론 규범 윤리학은 도덕 판단의 근거가 되는 도덕 원리를 탐구하여 도덕규범의 체계를 정립하고자 한다. 메타 윤리학은 도덕적 언어의 의미 분석 및 도덕적 추론의 타당성 검증 등을 핵심 과제로 삼는다.
- [출제의도] 석가모니와 장자의 입장 비교하기**
같은 석가모니, 율은 장자이다. 석가모니는 모든 존재와 현상에는 원인[因]과 조건[緣]이 있다고 보았다. 장자는 차별 의식에서 벗어나 도의 관점에서 만물을 평등하게 바라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출제의도] 기술에 대한 하이데거와 야스퍼스의 입장 비교하기**
같은 하이데거, 율은 야스퍼스이다. 하이데거는 기술이 인간이 자연과 관계 맺는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기술을 단지 가치 중립적 도구로만 여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야스퍼스는 기술의 본질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단지 수단이라고 보고, 기술은 인간의 지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 [출제의도] 교정적 정의에 대한 베카리아, 칸트, 루소의 입장 비교하기**
같은 베카리아, 율은 칸트, 병은 루소이다. 베카리아는 생명권을 타인이나 사회에 양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칸트는 응보의 관점에서 보복법만이 형벌의 결과 양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루소는 사회 계약의 목적이 생명 보존에 있으므로 생명권의 양도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 [출제의도] 플라톤과 맹자의 직업관 비교하기**
같은 플라톤, 율은 맹자이다. 플라톤은 정의로운 국가가 되기 위해 모든 구성원이 공통으로 갖추어야 하는 절제의 덕이 있다고 보고, 다스리는 계층은 사유 재산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맹자는 백성은 향산(恒産)이 있어야 향심(恒心)을 가질 수 있다고 보고, 통치자는 백성의 생업을 보장하여 도덕적 삶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출제의도] 국가와 시민의 관계에 대한 홉스와 로크의 입장 비교하기**
같은 홉스, 율은 로크이다. 홉스는 만민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사회 계약을 맺는다고 보고, 국가가 수립되지 않은 곳에서는 소유권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로크는 자연 상태에서는 공평무사한 재판관이 없고, 모든 사람이 재판관이자 집행관이기 때문에 재산권 보장이 불확실하다고 보았다.

- [출제의도] 사이버 공간에서의 익명 표현 이해하기**
제시문의 '나'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익명 표현의 자유로 인해 개인의 인격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사이버 공간에서는 현실 공간보다 표현의 자유를 더 제한하는 규범이 요구된다는 입장이다. 이와 달리 '어떤 사람'은 사이버 공간에서도 현실 공간과 마찬가지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규범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출제의도] 죽음관에 대한 하이데거와 플라톤의 입장 비교하기**
같은 하이데거, 율은 플라톤이다. 하이데거는 현존제인 인간만이 죽음을 자각할 수 있으며, 죽음에 대한 불안을 계기로 참된 실존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플라톤은 죽음을 영혼이 육체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라고 보고,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 [출제의도] 종교에 대한 엘리아데의 입장 이해하기**
제시문을 주장한 사상가는 엘리아데이다. 엘리아데는 성(聖)과 속(俗)은 서로 구분되지만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성이 드러난 자연물은 그 자체가 성스러운 것이 아니라 자연물에 성이 현현(顯現)되었기 때문에 숭배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 [출제의도] 자연관에 대한 테일러, 칸트, 싱어의 입장 비교하기**
같은 테일러, 율은 칸트, 병은 싱어이다. 칸트는 인간이 다른 존재의 선과 독립된 그 자체로서의 가치를 지녔다고 보고, 인간을 단지 수단이 아니라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싱어와 달리 칸트와 테일러는 어떤 존재의 도덕적 지위 여부는 채고 감수 능력의 유무에 달려 있지 않다고 보았다. 싱어는 이의 관심을 갖는 모든 생명체는 이의 관심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도덕적 고려 대상이라고 주장하였다.
- [출제의도] 분배적 정의에 대한 노직과 롤스의 입장 비교하기**
같은 노직, 율은 롤스이다. 노직은 자발적 행위와 교환으로부터 새로운 소유물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또한 자유롭게 이전된 소유물이라 하더라도 최초 취득의 과정이 부정적이었다면 그 소유물은 교정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주장하였다. 롤스는 자연적·사회적 우연성의 영향력을 감소시켜서 최소 수혜자들의 이익을 증진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최소 수혜자들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국가가 재분배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 [출제의도] 하버마스의 담론 윤리 이해하기**
제시문을 주장한 사상가는 하버마스이다. 하버마스는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실현해야 서로 갈등하는 다양한 의견을 합리적으로 논의하여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그는 다수가 아니라 담론 참여자 전원의 동의로 규범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출제의도] 벤담의 공리주의 적용하기**
제시문을 주장한 사상가는 벤담이다. 벤담은 공리의 원리에 따라 쾌락을 산출하고 고통을 피하는 결과를 낳는 행위가 선한 행위라고 보고, 보편적 도덕 원리인 공리의 원리를 도덕과 입법의 원리로 제시하였다.
- [출제의도] 시민 불복종에 대한 싱어와 롤스의 입장 비교하기**
같은 싱어, 율은 롤스이다. 싱어는 정당한 시민 불복종이라도 법에 대한 존중감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롤스는 소수자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정책과 같이 평등한 자유의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

- 한 법과 정책은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 [출제의도] 관용의 자세와 관용의 한계 이해하기**
가상 편지에서는 관용이 다원주의적 사실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 갈등과 폐해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본다. 한편 모든 것이 관용되면 아무것도 관용될 수 없다고 여기며 다원주의 사회에서 다름을 불관용해도 되는 경우도 존재한다고 본다.
 - [출제의도] 평화에 대한 칸트와 갈통의 입장 비교하기**
같은 칸트, 율은 갈통이다. 칸트는 어떠한 독립 국가도 상속, 교환, 매매 혹은 증여에 의해 다른 국가의 소유로 전락할 수 없으며, 침략 전쟁의 유발 요인이 되는 상비군을 점진적으로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갈통은 모든 폭력은 다른 종류의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며,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의도적 폭력뿐만 아니라 비의도적인 폭력까지도 모두 제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출제의도] 사랑에 대한 프롬의 입장 이해하기**
그림의 강연자는 프롬이다. 프롬은 진정한 사랑은 수동적 감정이 아닌 능동적 활동이며,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사랑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립과 갈등은 파괴적인 것이 아니라 두 사람에게 더 많은 지식과 힘을 갖게 해준다고 주장하였다.
 - [출제의도] 칸트의 예술관 이해하기**
제시문을 주장한 사상가는 칸트이다. 칸트는 미는 도덕성의 상징이라고 보고, 선과 미는 모두 이기적 욕구로부터 자유로우며 보편 타당성을 전제로 판단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성적이면서 동물인 인간만이 선과 미가 주는 만족을 모두 느낀다고 보았다.
 - [출제의도] 해의 원조에 대한 싱어와 롤스의 입장 비교하기**
같은 싱어, 율은 롤스이다. 싱어는 원조의 목적이 인류 전체의 행복을 증진하고 고통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보았다. 롤스는 원조의 목적은 고통받는 사회가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돕는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그는 고통받는 사회가 자신의 문제를 합당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된다면, 그 이후로는 여전히 빈곤한 사회라도 원조의 의무가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출제의도] 유전자 치료에 대한 입장 비교하기**
같은 질병 치료를 위해 체세포 유전자 치료와 생식 세포 유전자 치료를 모두 허용해야 한다고 본다. 율은 생식 세포 유전자 치료로 인해 변형된 유전자 정보는 미래 세대에 영향을 끼치며, 비치료적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체세포 유전자 치료만 허용해야 한다고 본다.